



강의 요약

왜 새로운 눈이 필요한가?

1) 서구에선 1900년대 모더니즘 사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단일 구조사회가 해체되고(한국에선 1960년대부터 시작됨---> 복합구조 사회로 진행된다.

2) 복합구조사회란 단일구조 중심으로 여러 구조가 존재하나 대부분 시민들은 의 문제는 한 구조에 소속되어 구조적 이동을 하지 않고 한 관점에서 여전히 생활하는 문화구조.

구조주의 철학적 관점이 유효한 사회

복합구조 사회의 생존법--->다양한 구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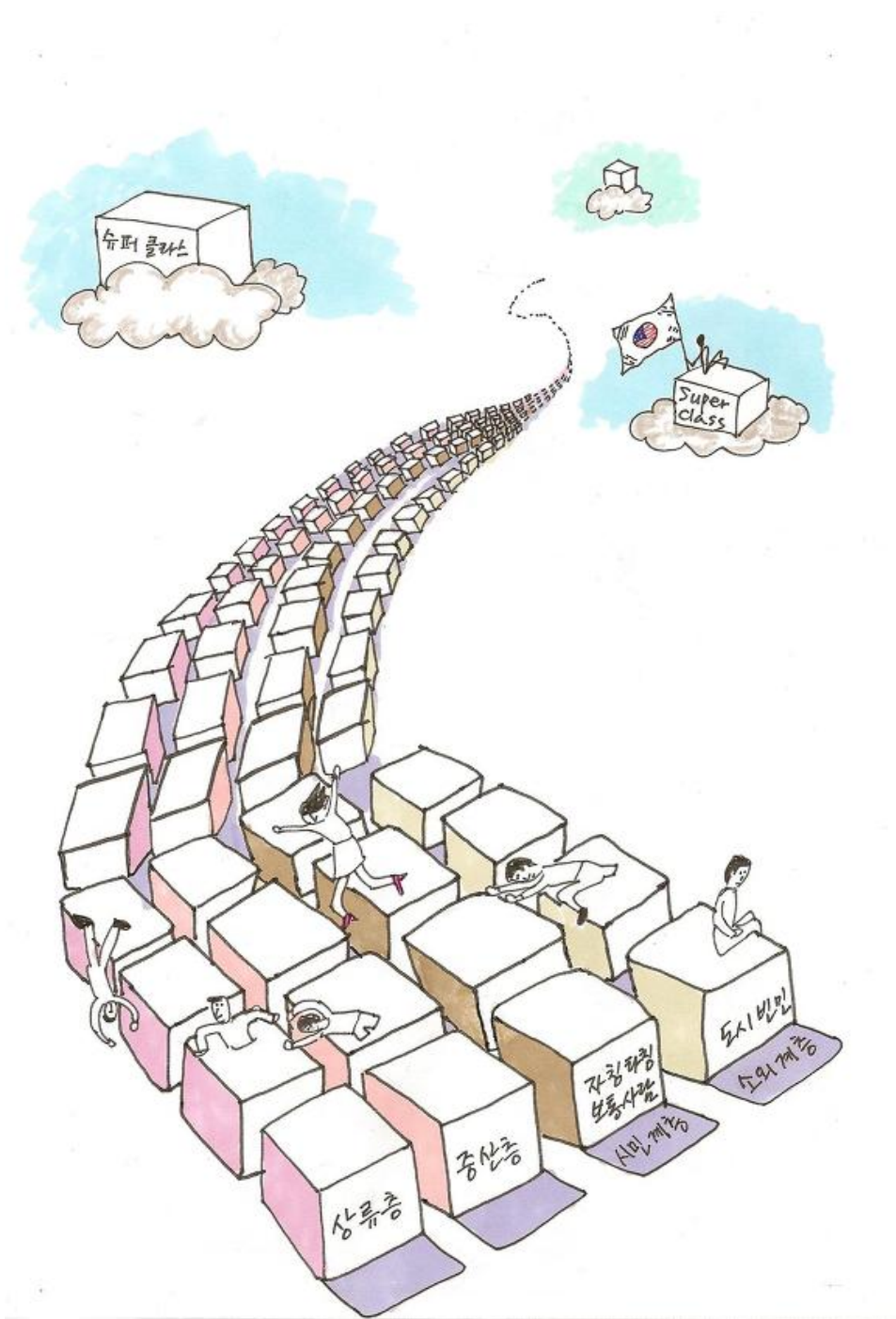
이해하는 눈이 필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사는 구조

<영국의 복합구조>





<한국사회의 복합구조>



복합구조 사회는 여러 역사관과 가치관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가치관과 문화구조를 유지하며 사는 사회다.

예를 들어 미의식과 문화예술사는 수 백번의 변화를 거쳐 진행되어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원전 400여년 전에 기초가 완성된 플라톤적 시각을 가지고 산다.

어떤 사람은 500년 전의 르네상스적 시각을 가지고 살고 5% 정도 만이 오늘날의 현대적 시각을 갖고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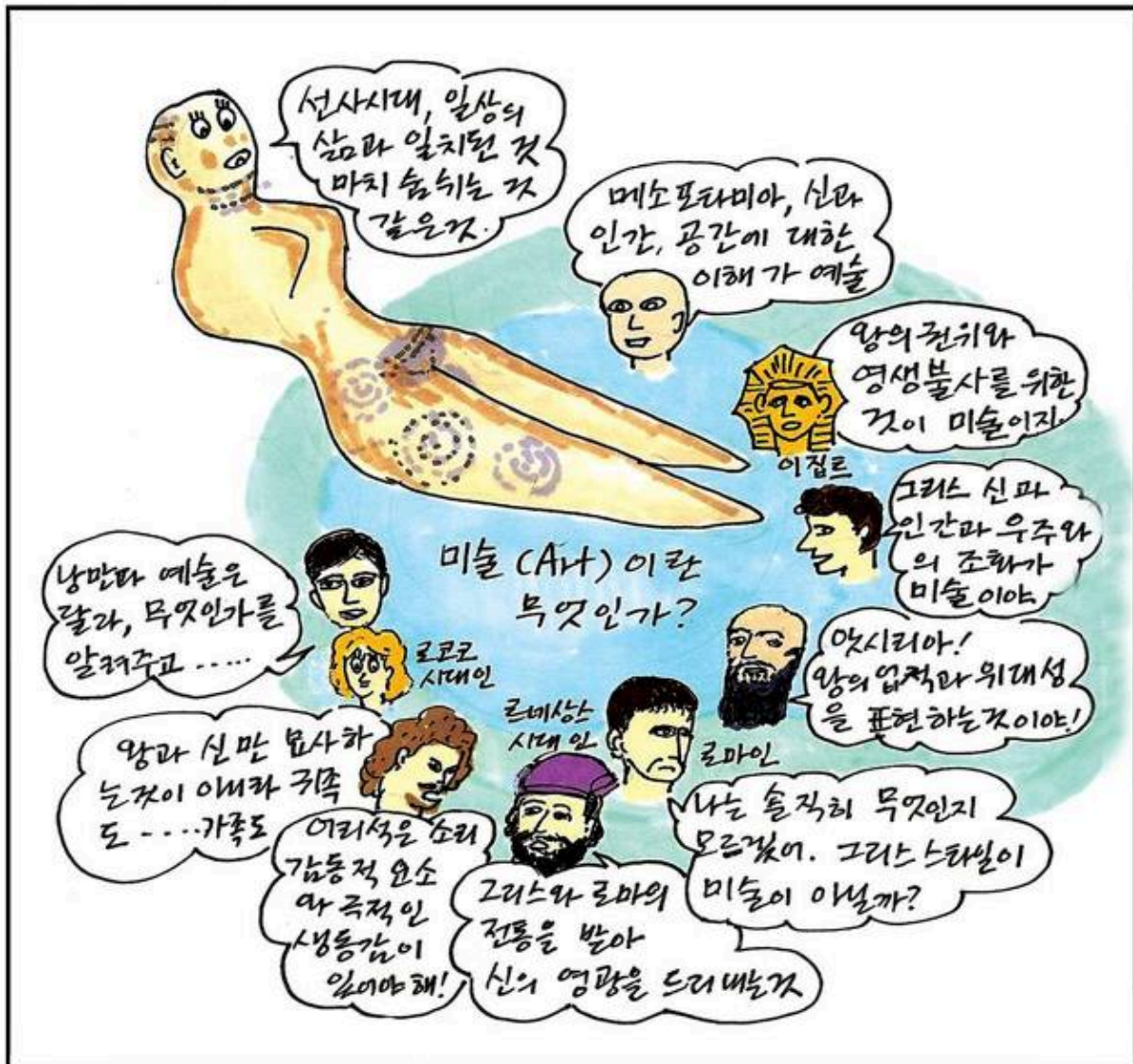
왜 오늘을 살면서도
오늘의 눈을 가지지
못하고
과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이것은 현대사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150여 년전 영국의 철학가이자 비평가인 존 러스킨은 900여 년전에
진행된 고딕미의식을 찬미하고 1848년 그를 따르던 몇몇 예술가들이
르네상스 시대 미술가 '라파엘'이전 (고딕시대)로 돌아가자고 선언하여
12세기 의식으로 돌아선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12세기 문화의식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중심으로 산다.

모두 아름다움이란 것을 자기 시대의 정해진 규칙과 표본을 따라 그대로 고수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이같은 현상이 바로 복합문화구조 현상으로
모든 사람들은 위에서 보는 진행된 중에 사람글은 하나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들 중의 여러분이 하나라면 미의식에 있어선
그 시대의 눈을 갖고 사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여러 구조로 이루어진 현대사회의 생존법은
구조를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는 '새로운 눈'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시공간을 옮겨갈 수 있는 '날개달린 눈'인 것이다.



3) 엘리트 사회와 지성사회에선

1968년부터 서구에선 복합구조 사회가 해체되고
탈구조주의가 시작----->파리의 학생운동이 그 기폭제로 작용
----1989년 탈이데올로기시대로 진입되며
심화되고 인터넷의 발달로 단일구조 사회는 해체직면을
맞이하고 복합구조 사회는
탈구조사회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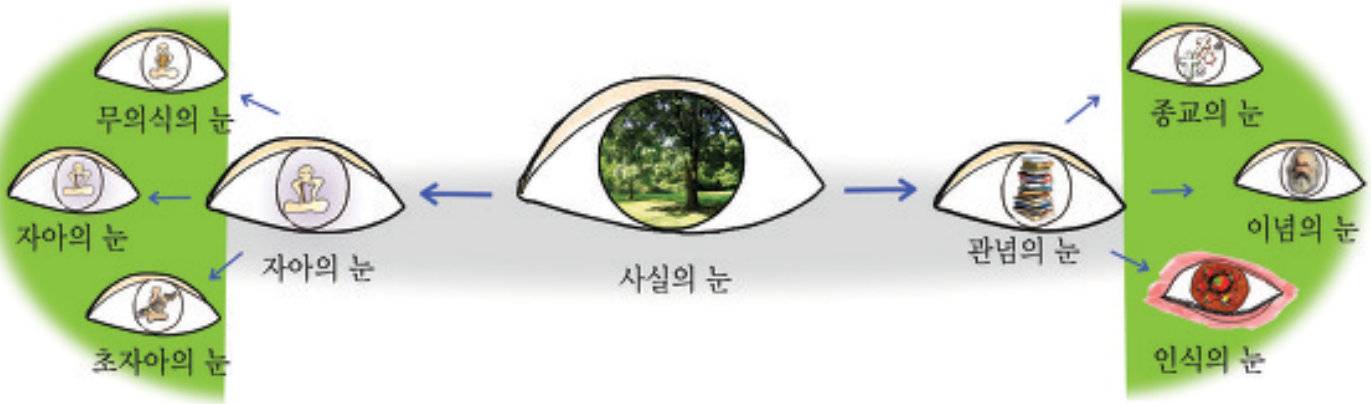
이젠 능력에 따라 누구나 자기 의지대로 구조를 선택할 수 있고,
구조를 옮겨 갈 수 있다.
이것이 들뢰즈가 말한 유목민(노마드)로 어느 세계나 언어능력과
전문 능력으로 옮겨가며 산다.

이보다 한 단계 더한 능력이 있다면
자기가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문화구조, 예술구조, 경제구조 등 등)를
운영하면서 살 수있는 것이
탈구조주의 사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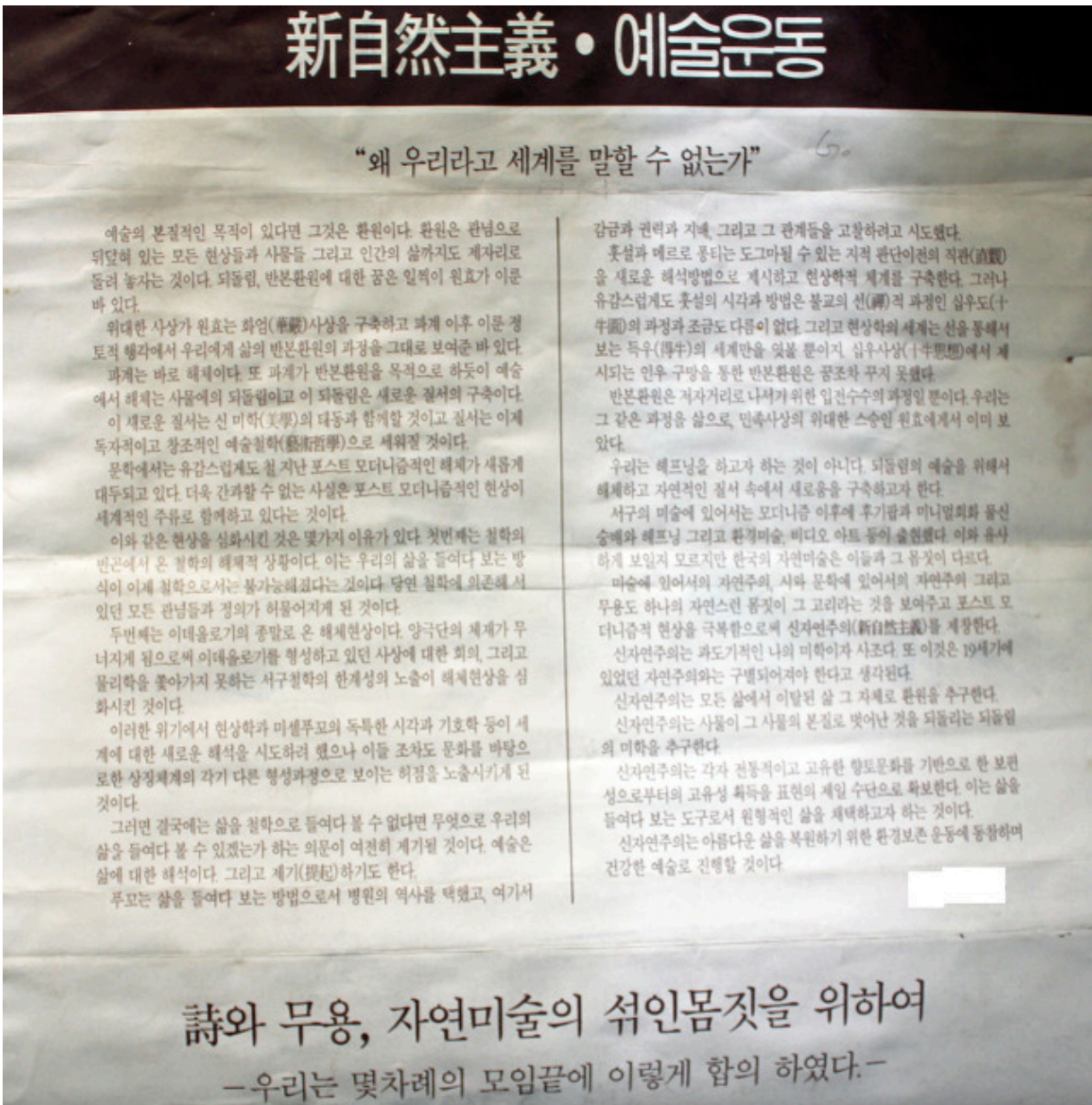
그러나 여기서 꼭 필요한 것은 갖게된 날개달린 눈에
자기의 몸통을 달아야만 한다.



4) 날개달린 눈의 몸통은 '인간의 본질 속에 감추어진 욕망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직관의 눈(사실을 보는 눈)'이다.



날개 달린 눈 그 몸통을 달기 위해 만들어진 이론이 신자연주의 이론이다.





1993년 9월 10월 27일 한국에서 최초로 선언된 신자연주의 예술운동이란?

- 1) 기존 동양적 자연주의, 자연에 조화하고 부속된 인간이 아니라
- 2) 인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자연사회,
이 자연엔 인간이 만든 의식적구조(철학, 예술 문화구조, 역사등 등)이
자연적 요소의 중심과 질서가 되고
- 3) 그 인간에 대한 해석은 한시적(정해진 일정한 시점)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행되며 발전되어가는 즉자적 시점(그 당시의 시점)을 중심으로
하고 변화해 가는 진행상태로 열어 놓는다.
(예를 들어 30년 전의 사람들과 지금의 사람은 전혀 다른 존재들이다,
앞으로는 10년 마다 사람들이 바뀔 수 있다. 이 바뀌는 진행과정 속에서
본질을 찾는 것이다.)

강좌를 마치며...

본 강좌는 11월 16일 3시간 반 동안 진행된 열린강좌로
이 강좌는 40여 분으로 축약 보충한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신자연주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마지막 거론하는 것으로 마무리해, 진한 아쉬움이 남을 수 밖에 없네요.

- 1) 왜 신자연주의적 몸통이 날개달린 눈에 필요한 것인가?
- 2) 21세기에 동서통합적인 눈으로 왜 신자연주의 몸통을 달아야 하는가?
- 3) 탈구조주의 사회의 대안 신자연주의란 무엇인가?

이것이 다음 열린강좌의 내용입니다.

영국사랑의 방송강좌를 듣고 5줄 정도의 소감과 1개 이상의 질문을

<영국사랑> 이런이야기 저런이야기,

혹은 본 카페의 이 글 밑에 댓글이나

<http://cafe.daum.net/rpschoo/OwHv/77>

페북 <https://www.facebook.com/RPInstitute> 의

이 글 밑에 댓글로 달아주신 분들을 초대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것입니다.